

힘겨운 고행 감내하며 불교중흥 서원...

만행결사 500km 대장정 오르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500여km 대장정에 올랐다. 스님들은 가사를 수하고 매일 새벽4시부터 하루평균 30여km를 행선에 임한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해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동참한 사부대중이 10월7일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500km 대장정에 올랐다. 21일간 구미 신라불교초전지를 지나 낙단보 마애여래보살좌상을 친견하고, 문경새재를 넘어 여주 양평을 거친 순례단은 10월26일 위례 상월선원에서 자자 시간을 갖고 다음날인 10월27일 서울 봉은사에서 회향한다.

대구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가사 수하고 여법하게 행선 새벽4시부터 하루평균 30km "사부대중 자비로운 마음 모여 코로나19 극복 불교중흥 원력"

여 명은 힘겨운 우리 가락을 연주했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은 "우리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고 불교중흥을 위해 걷기수행에 나선 스님과 불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달려왔다"며 "순례 중 상주와 충주에서 길거리 버스킹으로 음성공양을 선물하고, 또 회향하는 날에는 봉은사에서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순례하는 대중들을 향해 "화이팅" "힘내세요" 하며 박수와 연호를 보내는 스님과 신도들도 보였다.

첫날 순례단은 강변리틀야구장까지 20km를 걷고 하루 정진을 마무리했다. 서울 호암사 주지 우봉스님은 하루 30km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것보다 참가 자체가 수행이자 고행이라고 했다.

"비쁜 일정을 쫓게 21일이란 시간을 할애하고, 비용을 부담해서 온 스님과 불자들 한분 한분 다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싶다"며 "결과가 분명치 않은 일에도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온 사부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국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정진에 동참했던 대중들도 원만 회향을 응원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상월선원 만행결사에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불교중흥을 이루는 것은 물론 코로나라는 난제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도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 순례단의 모습을 통해 불자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서로 고통 나누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0월8일, 사부대중은 새벽4시 대구 강변리틀야구장을 출발해 금호강에 이어 낙동강을 따라 26km를 걸었

다. 전날 야구장 인근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노숙한 참가자들은 밤새 추위와 소음을 견디고 다시 순례길에 올랐다. 어두운 새벽,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사부대중은 씁쓸이 걸었다.

오전6시30분경 노상에서 아침공양을 하고, 출발 6시간30분만에 숙영지에 도착했다. 순례 이들이 되면서 부상자도 속출했다. 강릉 용연사 주지 설암스님은 순례 중 발목을 빼면서 왼쪽 발목을 심하게 다쳤지만, 21일 정진을 성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넘어져 다친 본오스님은 치료 직후 다시 행렬에 합류에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독심을 보여줬다. 또 추운 새벽 공양을 하다가 체해서 구토하는 등 고생을 하는가 하면, 다리 통증으로 걷기 어려워 아쩔 수 없이 차량에 탑승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야영지에 마련된 동국대일산병원 의료지원팀 부스에는 사부대중 발걸음이 이어졌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힌 환자들이 가장 많았고, 근육통 때문에 파스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순례단 총 최고령이기도 한 이채순(75, 충남 아산)씨는 "영하 '아홉 스님'을 보고 순례를 해보니 스님들이 얼마나 고행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민폐가 될까 우려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남양주 묘적사 주지 환풍스님은 "만행결사가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동참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사고 없이 정진하기를 바란다"며 "모든 사람의 염원을 담아 코로나 확산을 막고 전염병이 소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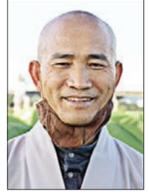
대구=어현경·홍다영 기자 사진 김형주기자 cooljoo@ibulgyo.com

"코로나 방역 최우선으로 삼고 건강한 회향에 집중하겠습니다"

■ 만행결사 지객 원명스님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는 사부대중 82명이 참석했다. 당초 참가 신청을 했다가 건강상의 이유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한 참가자들이 11명이다. 이 가운데 70대 참가자가 2명으로, 호계원장 무상스님과 공주 마곡사 신도 이재순 불자이다. 젊은 불자들도 함께 했다. 대학생 백준엽 씨와 김정도 동국대대학원 총학생회장,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이 참가했다.

이번 상월선원 만행결사에서 지객 소임을 맡은 원명스님(사진)은 "사정상 못 온 스님들은 참가비를 대중공양금으로 회향하기도 하고, 여건이 허락되면 꼭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바쁜 가운데 원력을 내 동참해준 사부대중과 공양물을 후원해준 스님과 불자들 모두 고맙다"고 인사했다. 제주 관음사 허운스님은 순례단을 위해 21일간 굶을 공양하고, 허스님은 21일간 옷차 130여 병을 후



원하며, 성기홍 바이탈식스랩 대표는 마스크 6000장을 전달했다. 참석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후원해준 스님도 많다.

지난 공주 순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스님들이 가사를 수하고 행선한다는 것이다. 여법하게 행선하는 스님과 불자들을 보고 환호하며 응원하는 시민과 불자들도 있다. 대구 시내를 지나며 "고맙다" "감사하다"며 박수를 쳐주는 이들이 있어 스님은 힘이 난다고 했다.

순례가 끝나는 10월27일까지 원명스님은 모든 참가자들이 원만하게 회향하길 바란다. "첫 번째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 사부대중의 건강이 중요하다"며 "부주의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모두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범우들에게 도전과 용기 보여줄래요"

■ 윤정은 대불련회장

"청년 불자를 대표해 고불문을 낭독하며 내가 진실로 크고 중대한 결사에 참여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어요. 21일 동안 열심히 순례에 임해 반드시 완주할 것을 부처님 전에 다짐했습니다."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사진)은 10월7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을 앞두고 봉행된 불교중흥 국난극복 자비순례 입재식에서 만행결사 참가대



입재식이 끝난 직후 동화사를 출발해 이날 목적지인 대구 강변리틀야구장까지 20km 순례를 무사히 마무리한 윤 회장은

“직접 걸으면서 체험해 보니 하늘, 바람, 꽃 등 평소 눈여겨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한 눈에 들어오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루 순례를 마친 이후에도 스스로를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불교 동아리 범우들과 줌(zoom)으로 만나 온라인 법회도 현장에서 갖는다. 매일 틈날 때마다 책도 읽고, 세 줄 일기를 쓰고, 노래도 들으며 21일 간을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윤 회장은 "대불련 중앙사무국에서도 응원하러 온다고 한다. 비록 많은 범우들이 함께하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해 주고 있어 힘이 생긴다"며 환하게 웃었다.

“직접 걸으면서 체험해 보니 하늘, 바람, 꽃 등 평소 눈여겨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한 눈에 들어오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루 순례를 마친 이후에도 스스로를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불교 동아리 범우들과 줌(zoom)으로 만나 온라인 법회도 현장에서 갖는다. 매일 틈날 때마다 책도 읽고, 세 줄 일기를 쓰고, 노래도 들으며 21일 간을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윤 회장은 "대불련 중앙사무국에서도 응원하러 온다고 한다. 비록 많은 범우들이 함께하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해 주고 있어 힘이 생긴다"며 환하게 웃었다.

홍다영 기자

10·27 법난

제40주년 기념행사

지난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이 전국 5천여 개 사찰을 군화발로 짓밟고 2천여 스님과 불교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고문한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수난사입니다.

올해로 '10·27법난'이 자행된 지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역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고통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10·27법난'의 아픔을 역사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10·27법난 제4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 10·27법난 희생자 천도제
10월 27일(화) 오전 11:00~12:00 조계사 마당
- 10·27법난 40주년 특별전시회
10월 21일(수) ~ 29일(목)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본 행사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유튜브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 02-2011-1829(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